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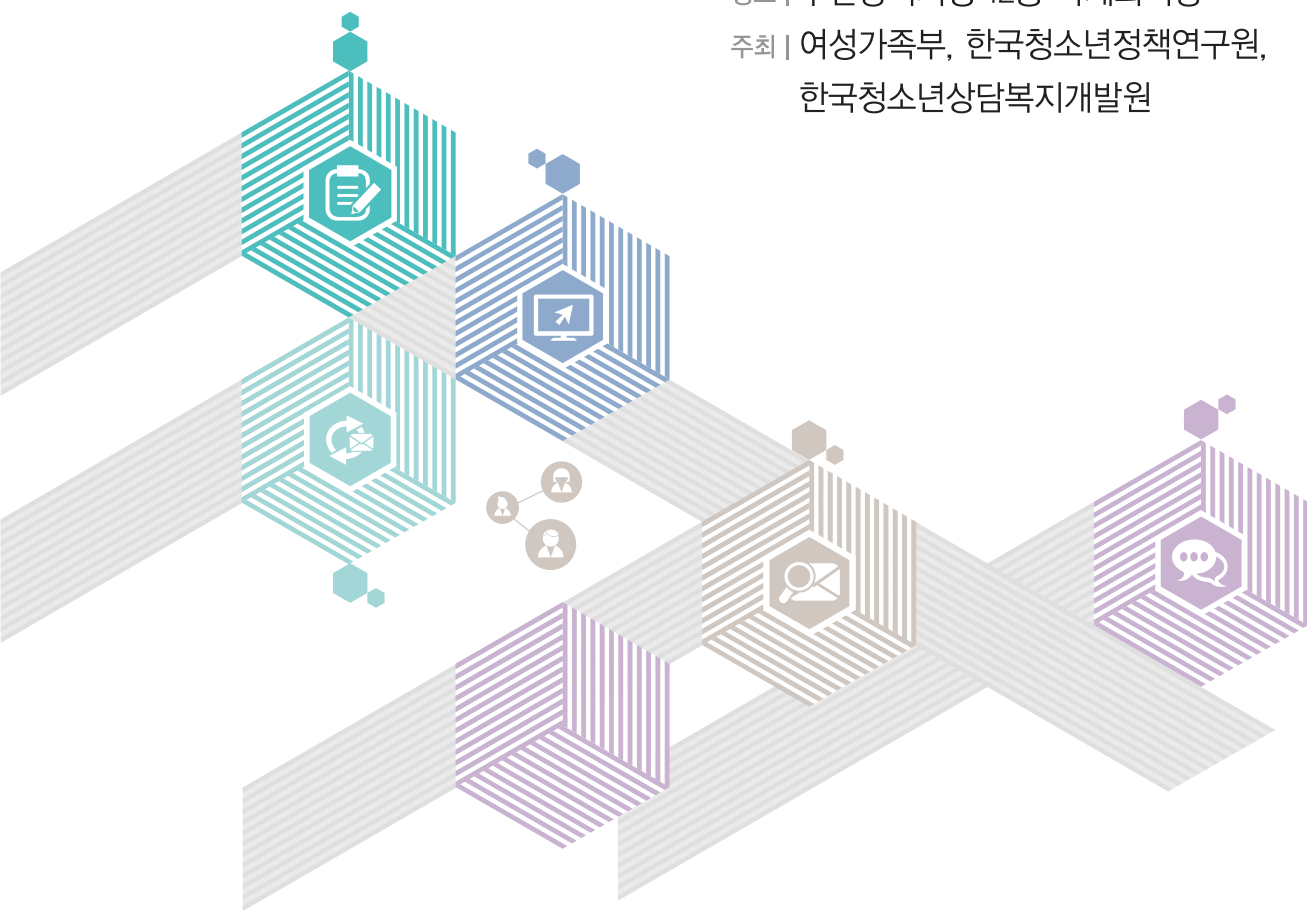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

일시 | 2019. 9. 27 (금) 14:00~17:00

장소 |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14:00~17:00
- 장소 :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간	진 행	내 용
		사회 : 모상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
14:00~14:20	개회식	[인사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오거돈 부산광역시 시장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14:20~14:40	기조강연	청소년정책과 지원서비스의 성찰적 전망 :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과 포용의 서설 -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장
14:40~15:00	발표	청소년안전망,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발전적 역할 기대 - 양미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
15:00~15:15		휴식
		좌장 :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장
15:15~16:05	토론	김지선 서울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황윤미 부산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장 안주란 교육부 사회전략기획팀장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16:05~17:00		종합토론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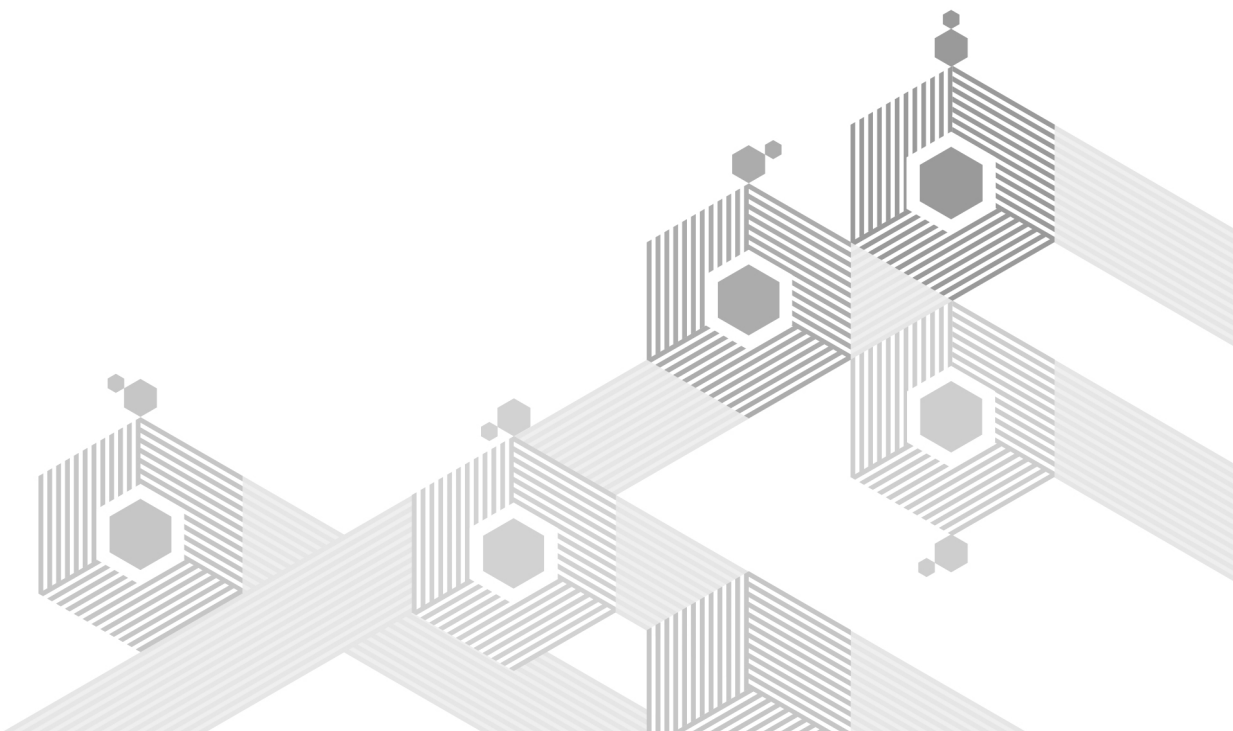
■ 기조강연	1
청소년정책과 지원서비스의 성찰적 전망 :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과 포용의 서설	
■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장	
■ 발 표	19
청소년안전망,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발전적 역할 기대	
■ 양미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	
■ 토 론	35
■ 김지선 서울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 황윤미 부산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장	
■ 안주란 교육부 사회전략기획팀장	
■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기조강연]

청소년정책과 지원서비스의 성찰적 전망 :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과 포용의 서설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장



청소년 정책과 지원서비스의 성찰적 전망 :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과 포용의 서설

김 동 일, PhD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대학생활문화원 원장

한국아동청소년상담학회 회장

정책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 목표(公的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기적인 행동지침’(행정학 사전, 2009)

〈정책: 기능적 분류〉

정부 조직(→행정조직)의 각 기능(機能)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책을 안보정책·외교정책·교육정책·환경정책·

복지정책·통상산업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정책은

기능이 아닌 **대상 중심: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청소년**이 정책 대상임.

- 기능을 담당하는 타 부처와 **협력**과 **공조**가 필수적이며 **소통, 총괄 조정**의 필요
- **다차원적**이며 **복합적** 접근이 요청됨.
- 정책 유형으로는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정부가 각종의 재화·서비스·혜택 등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청소년기?

아동기와 청년기와는 다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

청소년(adolescence, Youth)이란 용어는 라틴어로 성장한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ad + old)란 의미로써, 이 시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전환기적 특성과 독특한 발달과업을 보인다. (Nielsen,
1991).

청소년기의 독특성 (김동일, 2019)

사고와 학습 효율이 정점으로 발달한 뇌 영역과는 달리 주의력, 자제력, 과제 완수, 감정 등 영역의 효율성이 높지 않은 것과 연관.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청소년의 이마엽은 80% 정도밖에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신에게 해가 되는 부정적 정보를 다루는 앞이마겔질의 발달 지연으로 인하여 앞 뒤 돌아보지 않고 위험한 일에 뛰어드는 성향이 크고, 거기에 뒤따르는 실수나 사고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성인 수준의 스트레스 내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자극에 민감한 시기로서 종종 극적인 위기(폭력, 중독, 가출)가 발생

발달과업을 이루고 성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독특성'에 주목하여 가정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과 공공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든든한 청소년안전망 체계가 설계되어야 함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특성

경험에만 의존하는 즉흥적인 사고 체계→ 보다 수준 높게 사고하는 기술을 발달.

- 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측.
- 과거에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의문 제기, 새로운 신념을 탐색, 성인들에 대한 비판 시도.
- Piaget(1977) "**형식적 조작사고**"

: 피아제 인지발달이론의 최종 네 번째 단계. 전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어려웠던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에 관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의 사고는 보다 더 유연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

: 직접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넘어서 죽음, 자유, 종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미래사회의 전망 등과 같은 추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능.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특성

자신이 **독특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길 원함 + 자신의 개인적인 발달, 친구들과의 우정, 다른 사람의 **관계** 등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함.

자신의 **독립성**을 외부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들에 집중.

(예: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거나 자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동 등)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려 함. 즉,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 직업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직업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요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됨.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특성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인 정서경험**.
그러므로 낙관적, 비관적 감정이 교차하기도 하고 자부심과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기도 함.
또한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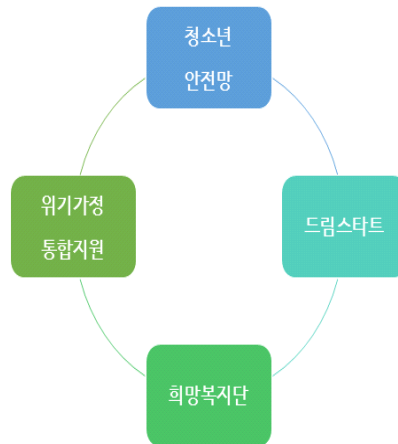
다양한 감정 중에서 강한 수치심, 죄의식, 우울, 분노, 수줍음 등은 문제행동이 될 수 있음.
이 시기의 주요한 과제는 **자신의 감정에 보다 관대해지는 것**(Newman & Newman, 1991).
이것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감정상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함.

청소년들은 이러한 급격한 정서변화에 반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 어떤 청소년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지나치게 억압하여 우울증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에 걸리기도 하는 반면 정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비행행동을 보이기도 함.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서변화에 대한 **인내심을 길러야 하며,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성찰 :

중앙 부처와 지역사회기반 통합적 지원 정책의 개관



대상

청소년안전망(구CYS-Net) 2019	위기가정통합지원 2019	희망복지단 2018	드림스타트 2019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된 가구 중 '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 (피해자, 가해자 포함)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 중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및 자립지원 가능 가구 등	0세(임산부) ~ 만 12세 아동 (초등학생 이하/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및 가족(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 우선지원)

사례발굴

청소년안전망(구CYS-net) 2019	위기가정통합지원 2019	희망복지단 2018	드림스타트 20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채널(청소년전화 1388, 모바일문자상담, 사이버상담)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발견 필수연계기관(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등) 연계 1388청소년지원단 「발견·구조지원단」 연계: 운수업체, 목욕장, PC방 등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상담, 일시보호 등 CYS-Net의 통합 서비스 제공	112 신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에서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 실시 통합조사관리팀: 복지대상자에 대한 자산조사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를 토대로 통합사례 관리사업 필요가구를 읍면동에 의뢰(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 가구)	개별(본인 및 타인) 의뢰 접수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의뢰 접수 행복e음 내 취약계층 아동 중 가정방문을 통한 드림스타트 자체 발굴

연계(1)

청소년안전망(구CYS-Net) 2019	위기가정통합지원 2019	희망복지단 2018	드림스타트 2019
적합한 사업으로 연계하여 진행 사례관리에 적합한 사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함. ·가출(의식주 지원, 가정/사회 복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인터넷 중독(인터넷 치유학교 운영, 인터넷중독 상담 전담인력 배치), 학교폭력(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 경제적 지원(학비, 생활비 등 청소년 특별지원), 고위기 청소년(청소년동반자 연계 p. 456)	위기가구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경 협력 네트워크 -서비스 연계 관련 기관 현황 조사, 협력방안 수립, 긴급지원 체계 마련, 위기가정 서비스 욕구에 따른 대책마련 *담당공무원 역할: 자치구 차원의 서비스 연계 관련 기관 현황 조사 및 협력방안 수립, 긴급사례발생 시 긴급지원 체계 마련, 위기가정 서비스 욕구에 따른 대책 마련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총괄, 고난도 사례관리, 슈퍼비전 및 솔루션회의 운영, 자원관리, 읍면동 관리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팀장(선임 복지직): 사례관리사업의 총괄 관리, 수행인력 역량 개발, 자원관리, 지원체계 마련, 운영체계 마련, 사업홍보 팀원(복지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주사례관리자로서 실무 수행	서비스유형 사례회의에서 계획한 내용에 근거하여 제공함 행복e음 내 서비스 이력을 참고하여 중복서비스 수혜 방지 지역 내 자원연계 곤란할 경우 직접서비스 제공 가능

연계(2)

청소년안전망(구CYS-Net) 2019	위기가정통합지원 2019	희망복지단 2018	드림스타트 2019
연계 및 지역자원 - 필수기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호관찰서(보호관찰지소 포함) - 1388청소년지원단: 위기 청소년을 조기발견하고 원활히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조직 - 학교지원단: 학교에서의 지원 센터 상담 의뢰 활성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담당자 - 단순사례: 상담원 - 일반·고난도 사례: 통합사례관리사 서비스 연계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사건은 바로 전문기관으로 연계 전문상담은 상담소, 치료센터 등 2차 기관으로 연계 찾·동에서 관리하는 위기가정 사례 중 가정폭력 재발 시 전문기관으로 의뢰 찾·동에서 관리하는 위기가정 사례 중 복합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때 희망복지팀으로 의뢰	연계 기관 -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 민간복지기관: 대상가구 발굴, 의뢰 및 서비스 제공 - 자활관련 사업팀: 고용-복지 연계를 중점적으로 수행 - 시군구 사업팀: 드림스타트, 취약한 부모 역량 강화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례관리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업간 연계 협력을 통한 발굴 의뢰체계 마련, 필요시 공동 사례회의 실시 - 기타: 통합조사관리팀,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 보건소, 교육청(학교), 고용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유형 1) 기본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면담 2)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3) 맞춤서비스: 사정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기본서비스와 필수서비스는 사례등급과 상관없이 반드시 제공)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적극 연계 활용 (주요 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과 몰입치유 등)

위원회/심의 및 사정(1)

청소년안전망(구CYS-Net) 2019	위기가정통합지원 2019	희망복지단 2018	드림스타트 2019
운영위원회 - 역할: CYS-Net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관련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 - 구성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청소년복지 전문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CYS-Net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위기가정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경 협력 간담회 자치구 단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민·관·경 기관 참여 - 역할: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관한 자치구 현황 파악, 지역사회내의 안전망 구축 계획 수립, 긴급사례 발생 시 지원체계 구축	통합사례회의 주요서비스기관과 서비스내용을 협의하여 연계방식을 조정, 정기적 실시 권고 참석자: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연계기관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 시군구 내부사례회의 사례관리 가구선정,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내부에서 수시 개최 참석자: 희망복지지원단, 대상자, 대상자의 보호자	욕구조사 및 선정 시군 사례관리전문가가 해당지역 무한돌봄네트워크 팀에 의뢰하여 주사례기관 선정. 시군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와 주사례기관 담당자가 욕구조사 실시. 욕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사례판정을 위한 회의자료 작성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는 회의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 회의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및 긴급·집중·단순사례를 판정. -회의 참석자: 시군 사례관리전문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슈퍼바이저, 전담직원), 주사례기관 담당자

위원회/심의 및 사정(2)

청소년안전망(구CYS-Net) 2019	위기가정통합지원 2019	희망복지단 2018	드림스타트 2019
실행위원회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상담복지센터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자급 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필요시 사례회의 분과위원회 회의로 대체 가능	사례회의 목적: 초기상담 실시 후 사례유형 조정, 위기가정에 대한 개입방안 논의 및 진행상황 공유 - 참석자별 역할 ·희망복지팀 팀장: 사례 수퍼비전 ·담당 공무원: 회의주제 및 회의참가자 범위 결정 ·통합사례관리사: 논의할 안전중심의 회의자료 준비, 사례회의록 작성 및 행정처리 수행 ·학대예방경찰관(APO): 가정방문 필요성 논의, 경과사항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등 ·상담원: 서비스 욕구 및 연계방법 논의	솔루션회의 통합사례회의를 1회 이상 진행했으나 더 큰 범위의 자원과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여 시군구로 요청한 사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 해결 중심 회의 참석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위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사례회의 개최 시군 무한돌봄센터 주조정자 및 사례관리전문가 서비스 제공계획 접수 및 확정 사례등급판정에 따라 긴급사례는 시군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전문가가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집중 및 단순사례는 해당지역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이관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긴급지원(1)

청소년안전망(구CYS-Net) 2019	위기가정통합지원 2019	희망복지단 2018	드림스타트 2019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 긴급상황접수, 사례발굴: 긴급상황 발생 시, 지자체 및 CYS-Net 운영기관과 최초 인지한 기관 /시설 담당자가 초동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장 CYS-Net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관할 지역에 청소년관련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에서 그 결과 3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 일시보호소 운영(시·도만 해당)가출, 성매매, 가정 및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가능)청소년(만 9세~만 18세)	고난도 사례 판정 기준: 대상자(가구)특성(입건, 정신병력, 피해가 큰 사건, 소송, 긴급생계지원 등) 및 가용자원 등을 감안하여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	고난도 사례 초기상담시 주요문제에 '안전'과 '정신건강'의 두 가지 영역이 모두 포함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사례, 지역사회내 자원이 부족하거나 협력체계가 미흡한 경우 등 위기도 조사시 긴급사례라고 의심,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 즉시 신고 또는 의뢰	긴급사례관리 수준판정표 : 대상자, 가족 혹은 의뢰자의 판단으로 긴급개입이 요청된 경우 : 의식주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 폭력(아동학대, 성폭력, 자살 등) 발생 또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 갑작스러운 사고(사망 등)로 경제 및 사회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 : 집중사례관리에 해당되나 지역내 연계자원이 부족한 경우

긴급지원(2)

청소년안전망(구CYS-Net) 2019	위기가정통합지원 2019	희망복지단 2018	드림스타트 2019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 일시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이 성폭력, 자해,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음. 지역사회내 긴급상황 대응체계 확립 -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 체계: (긴급상황접수, 사례발굴) 긴급상황 발생시, 지자체 및 CYS-Net 운영기관과 최초 인지한 기관 /시설 담당자가 초동대응 -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솔루션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제해결 전담조직 운영: 광역 CYS-Net 중심으로 지역 내 지역사회 긴급지원팀을 구성하여 사회적·심리적 외상 전문 대응 체계 구축	고난도 사례 판정시 희망복지지원단 사례로 접수. 통합사례관리사 담당 통합사례관리사가 욕구사정을 한 후 희망복지지원단 내부사례회의를 통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목표수립과 서비스계획수립 등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 사후관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담당. 모니터링 대상 가구별로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1개월 단위로 2회 모니터링 실시	고난도 사례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요청 가능하며, 시군구-읍면동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주사례관리기관 결정	긴급사례관리 : 시군의 사례관리전문가가 욕구조사표를 솔루션 위원회에 상정. : 주조정자는 상정된 긴급사례에 대해 솔루션 위원회 개최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 및 확정. : 솔루션위원회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시군의 사례관리전문가가 종결까지 담당. : 긴급 문제 및 상황에 해결되어 집중 혹은 단순 사례로 전환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이관하여 사례관리 진행.



복잡계(Complex System)와 위기청소년 정책

복잡계(complex system)는 복잡한 체제(시스템)
(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가는 사회)



정책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공학적 접근으로 다양한 시스템과
요소의 기능을 이해하려 할 때, 새로운 안목이 필요:
복잡계 접근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둔 접근(Miller, 2017)

복잡계(Complex System) 접근: 위기청소년 정책

첫째 정책 이해 대상자들은 자기 나름의 대응을 통해 수정을 거듭하면서 현상을 만들어 감.

Non-linear emergence(비선형적 출현)이 새로운 질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따라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으며 항상 균형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특성은 **시스템의 관리를 어렵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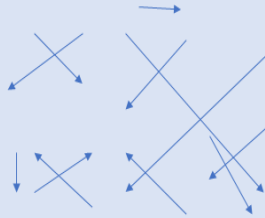
둘째, Smart intervention!!! 복잡계가 예측불가능하고 비선형적 출현이라면 각각의 특이한 상황에

필요한 특정한 지식이 요구되며, 개입도 **시스템의 특이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자와 성과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형성,

셋째, **정책의 역할은 적합성 지형(fitness landscape)를 찾는 것으로** 보아야함. 정책관리자의 역할은 행위자들의 지위와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

복잡계를 정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1)

복잡계는 연결과 상호 작용으로 뒤얽힌 시스템이다. 개별 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차원이 서로 영향(피드백)을 주고받는다. 그 연결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를 "비선형 시스템" 또는 "기복이 심한 지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 혹은 최적의 결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복잡계를 정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2)

"언덕 오르기 전략"

어느 순간에는 꼭대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그 지점이 국소적으로 최적일지는 몰라도,

과연 전체 시스템에서의 최적일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 언덕 오르기 전략을 사용하면,

국소적 최적에 갇힐 위험이 있다.

필요한 것은 "소음", 그리고 "오류".

내리막으로도 가봐야 함. 중립적인 지점에 도달하고, 거기서부터 탐색을 다시 시작.

처음에는 꼭대기를 포기하고 내려와야 하기에 성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복잡계에서의 소음은 국소적 최적을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해준다.



전략적인 "Trial & Error" !

다양한 차원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계에서는 예측이 어려우므로, 소음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확인(Miller, 2017)

복잡계(complex system)로서의 청소년 정책

* 모든 이가 만족하는 정책이 존재가능한가?

- 청소년 당사자
- 가족
- 청소년 지원 기관 상담자 및 종사자
- 기초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직원
- 중앙부처 담당자
- 다양한 이해 집단 등

복잡계(complex system)로서의 청소년 정책

* 정책 참여 주체의 다양한 지향을 만족시킬 정부의 정책수단은 사실상 언제든지 부족할 수 있다.

•

→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는 전략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게 된다.

•

→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관련 부처와 지역사회의 다른 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추가되어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지향을 달성할 수 있음. 위기 청소년 지원은 청소년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복지 정책, 노동정책 등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

위기 청소년 정책 지향점: **GET A GRIP**

GRIP (동사)

1. 짊 잡다
2. (마음 흥미 시선을) 끝다[빨아들이다]
3. (감정 상황이) 사로잡다
4. 밀착되다

Growth (성장)

Resilience (적응탄력성)

Inclusiveness (Inclusion-포용 통합)

Possibilities (문제 해결 위한 미래 가능성)

(김동일, 2019)

Growth: 성장 패러다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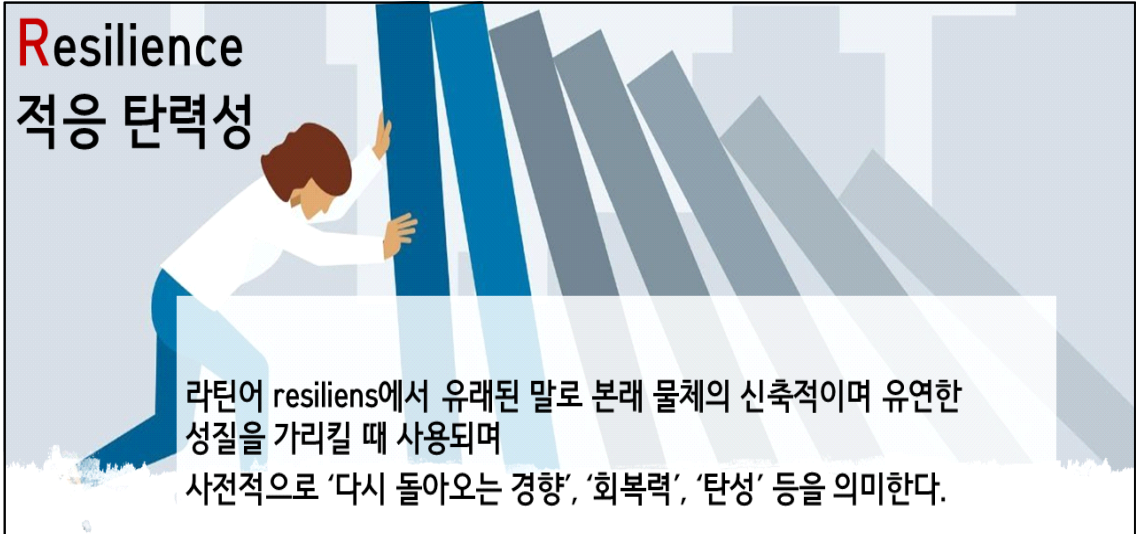
청소년 보호와
육성



성장과
주도적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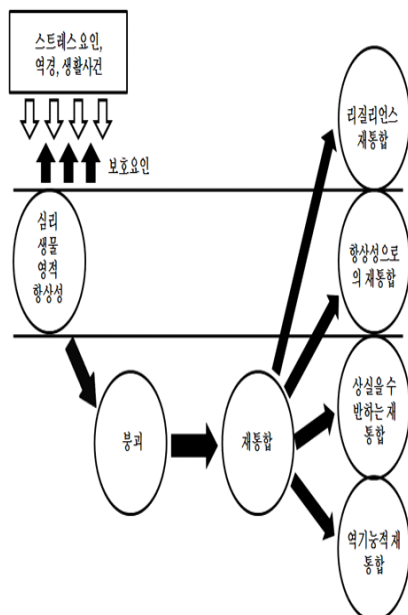
문제 감소와 예방의 소극적 정책에서 **참여**와 **성장**이라는 대전제를 확인
문제 청소년과 제도적 희생자 지원 패러다임->**자원**과 **파트너십** 패러다임

Resilience 적응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 판단 (김동일 외, 2011)
 첫 번째는 “청소년에게 고위험 상태에 의한 심각한 위협(역경)이 있는가?”
 두 번째는 “적응의 질이 우수한가?”

Resilience 적응 탄력성



- 보호요소 확인: 개인적, 가족, 지역사회 수준
- 적응탄력성을 보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 “자원인사: 키다리 아저씨” 존재
- 위기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적응탄력성을 담당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 “키다리 아저씨”**

Inclusiveness (Inclusion 포용과 통합)

통합과 포용의 사회는 구성원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에 의해 구현.

다양성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교육 + 실질적인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

→ 청소년의 주도적 역할 강조

각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이해를 높이고, 이들과 관련된 개인수준의 활동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수준으로 확장

지역사회 통합지원 청소년 안전망의 기본적 정초(定礎)는 다층적이며 다양한 포용적 정책과 지원

→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망 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발굴 및 지원 필요

Possibilities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 가능성)

위기 청소년의 과거에 대한 고착적 사고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움.

해결의 실마리는 미래지향적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음.

현재 문제의 해결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있으며, 해결중심 접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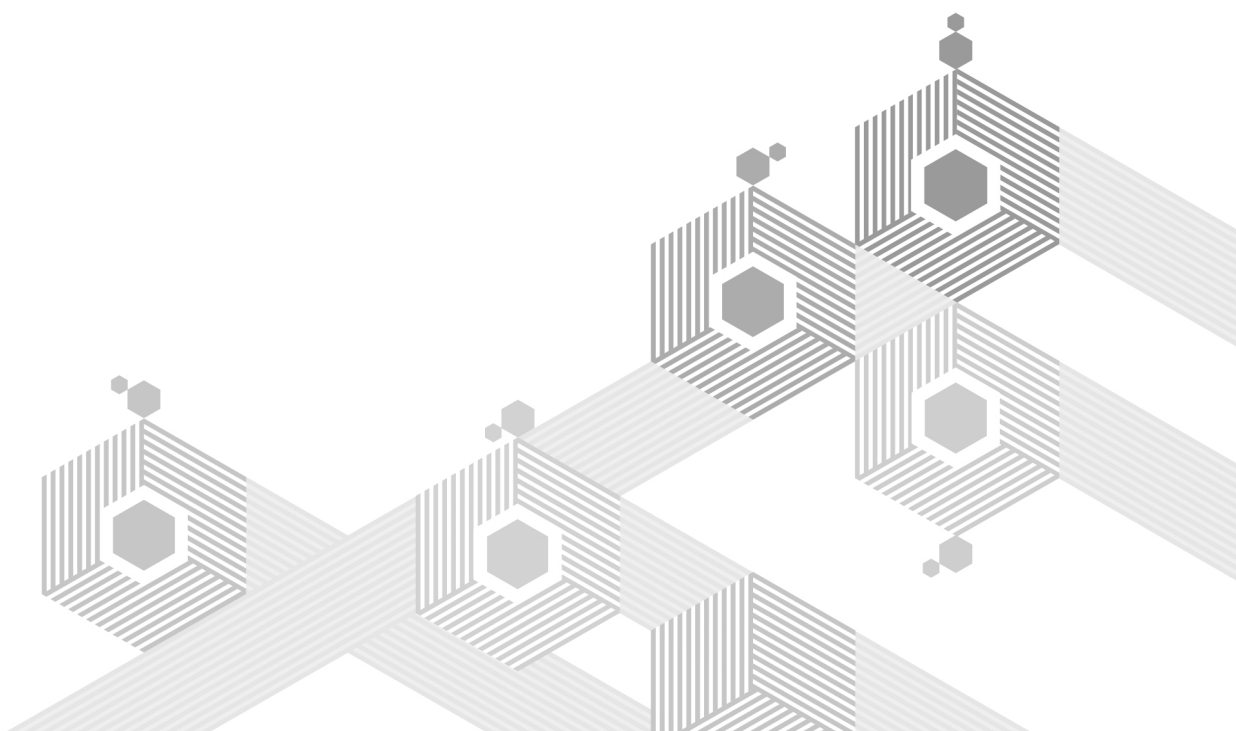
away from approach 보다는 towards approach

[발 표]

청소년안전망,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발전적 역할 기대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

양미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



청소년안전망,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발전적 역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본부장 양미진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안전망, 새로운 시작과 지역사회의 발전적 역할 기대

- 청소년안전망(구CYS-Net)의 태동
 - 청소년안전망(구CYS-Net)의 시작과 현재
 - 청소년안전망(구CYS-Net), 최근의 이슈와 반성
 - 청소년안전망(구CYS-Net), 왜 변화할 수밖에 없는가?
 - 청소년안전망(구CYS-Net), 변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
 -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변화
 - 향후 논의해야 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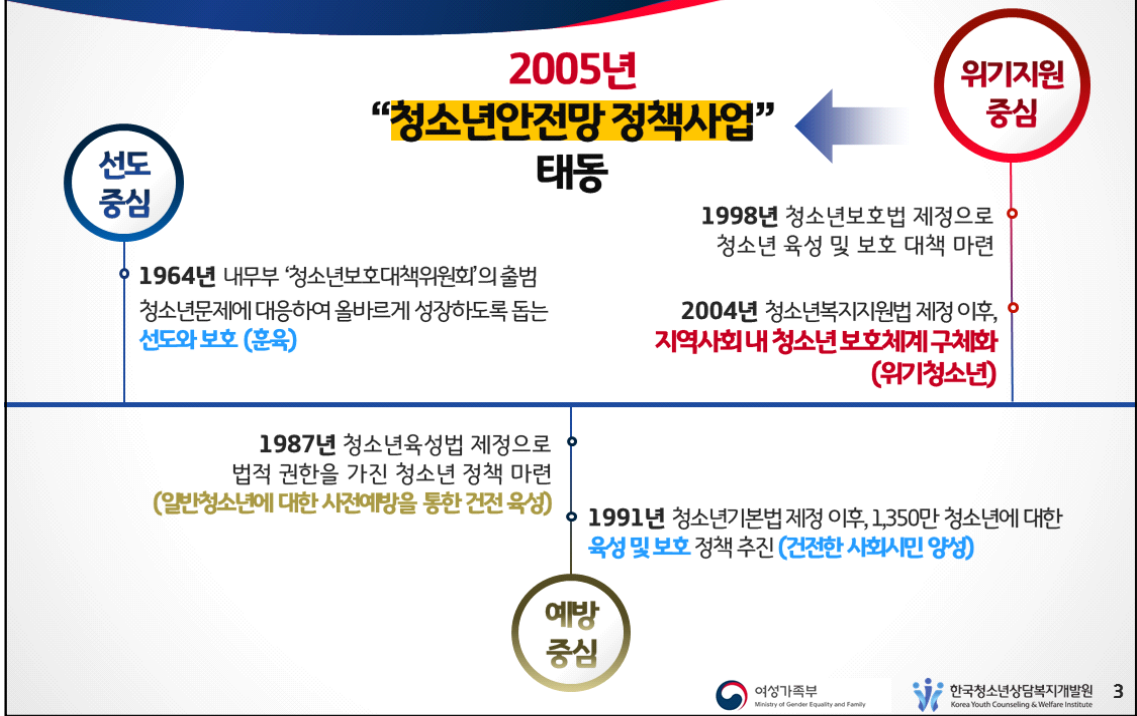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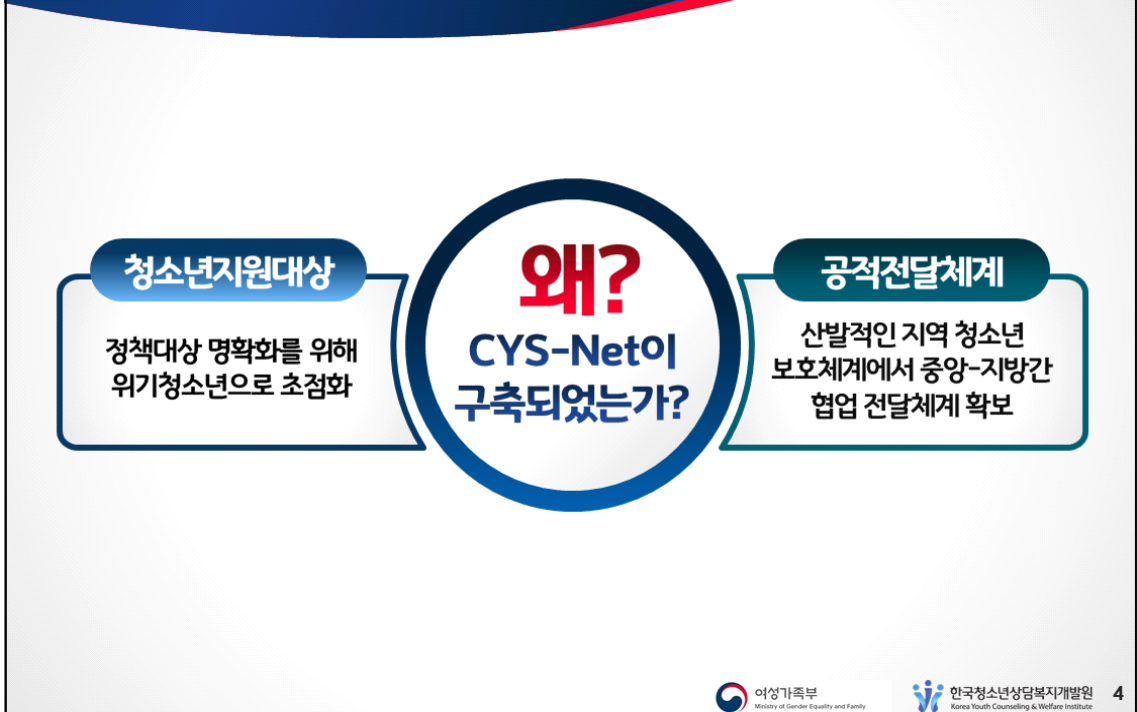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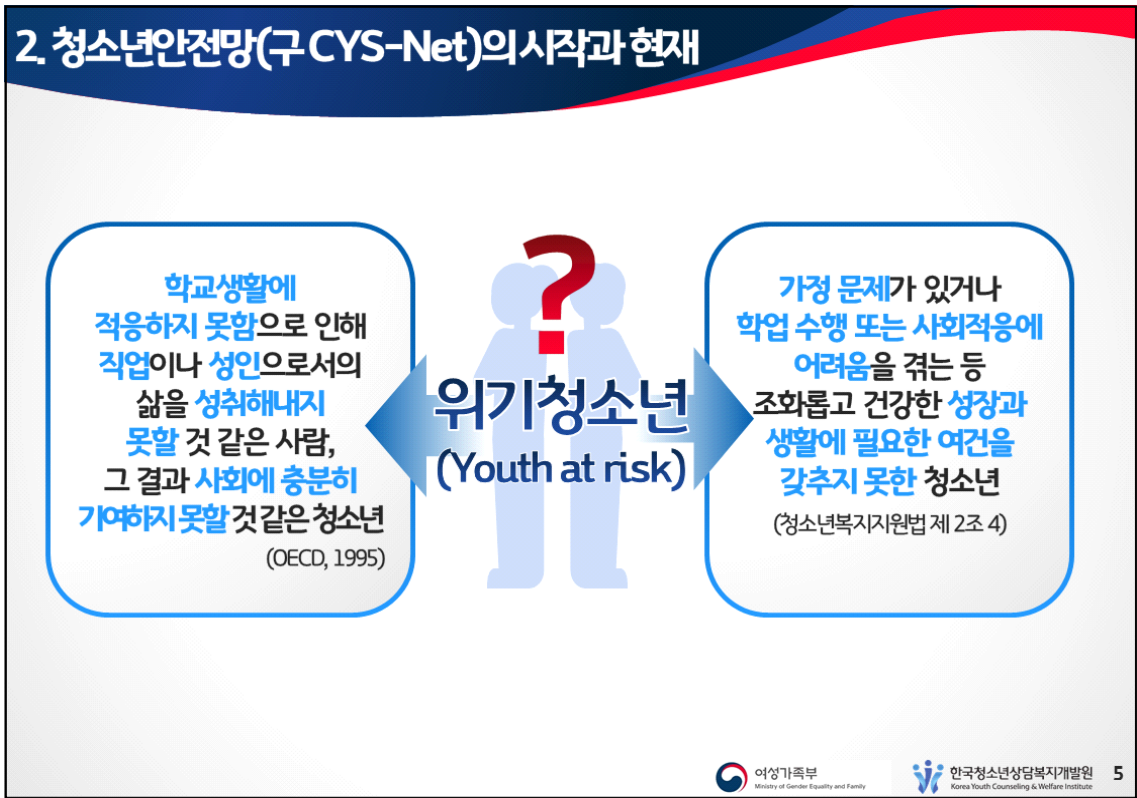
1. 청소년안전망(구 CYS-Net)의 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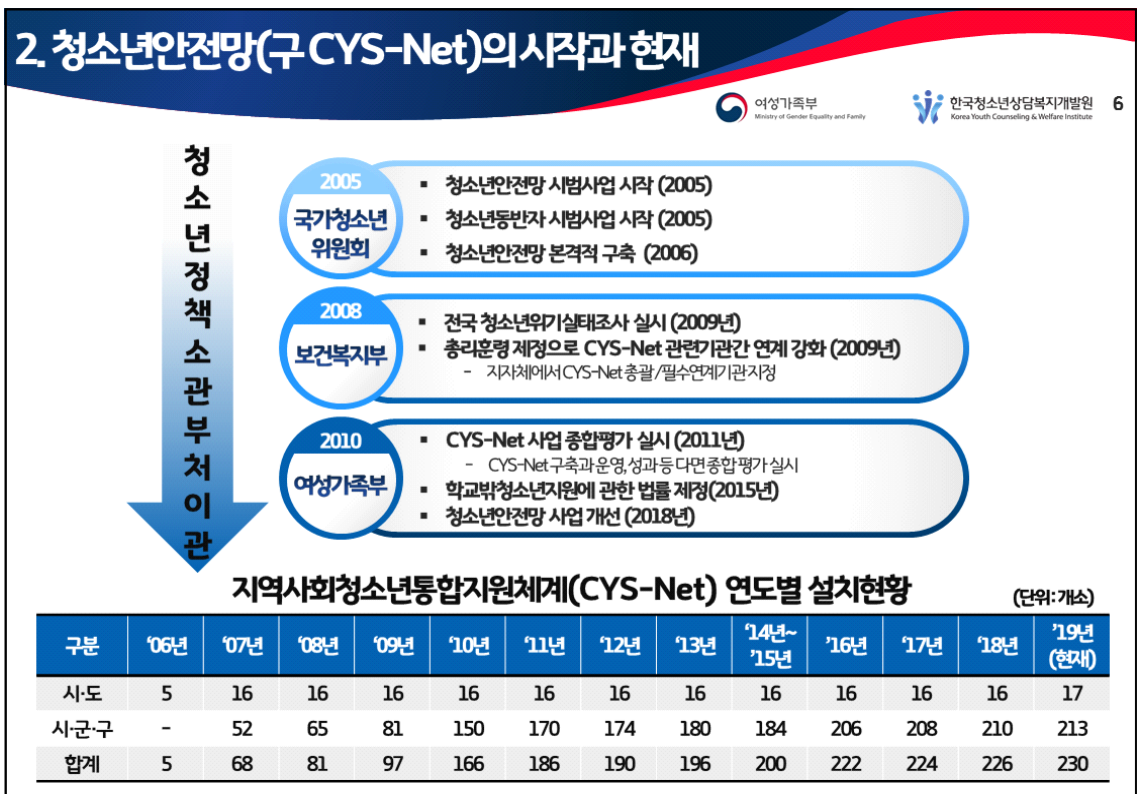
2. 청소년안전망(구 CYS-Net)의 시작과 현재



2. 청소년안전망(구 CYS-Net)의 시작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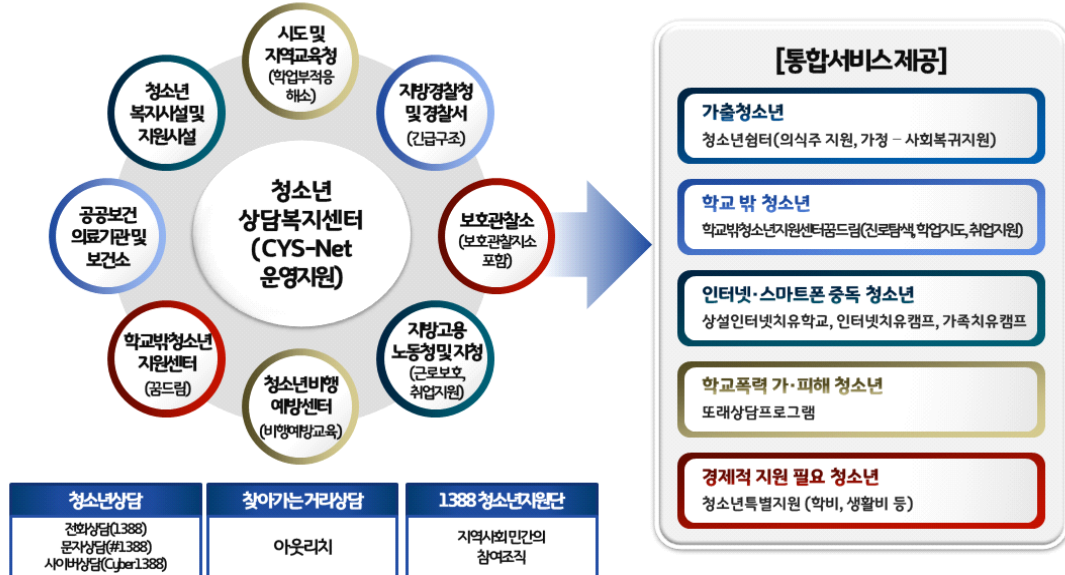


2. 청소년안전망(구 CYS-Net)의 시작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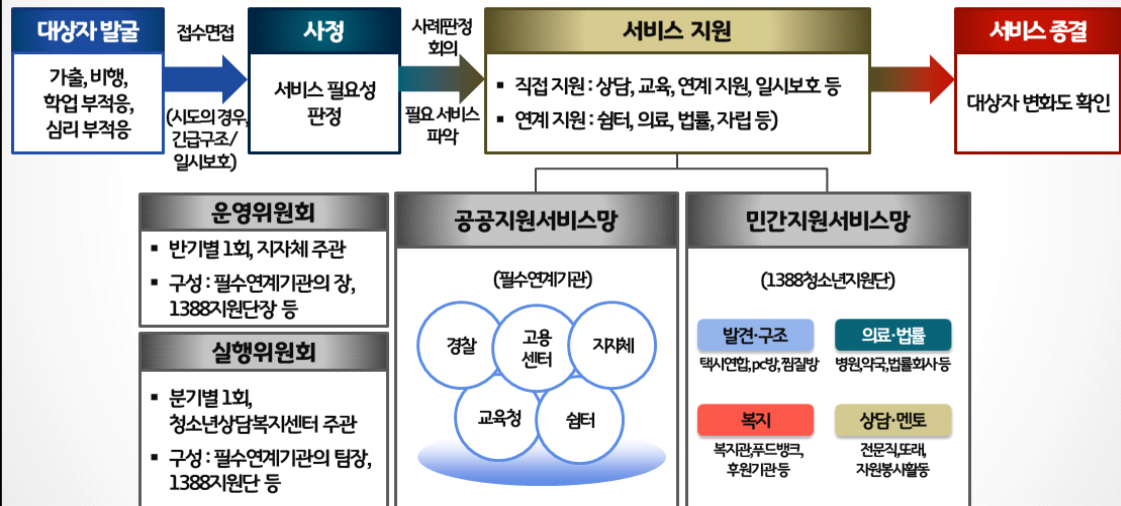
2. 청소년안전망(구 CYS-Net)의 시작과 현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모델



2. 청소년안전망(구 CYS-Net)의 시작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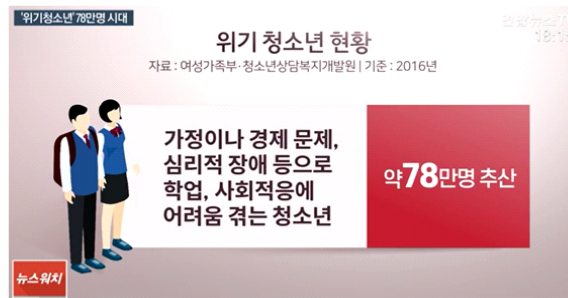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서비스 전달 과정



3. 청소년안전망(구CYS-Net), 최근의 이슈와 반성

청소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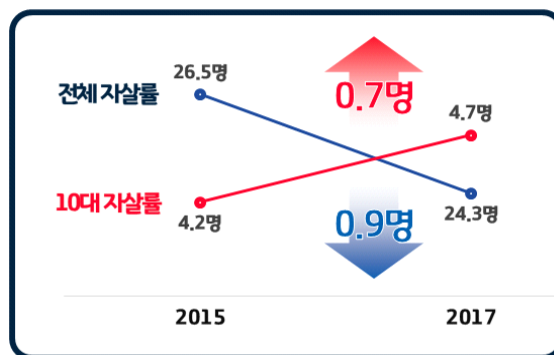
왜 청소년 문제는 줄어들지 않는가



CYS-Net 점검과 내실화 고민이 필요
→ ‘고위기청소년 대응’

3. 청소년안전망(구CYS-Net), 최근의 이슈와 반성

청소년 위기 문제의 심각성



※ 단위명(인구 10만명당명)

※ 출처: 2019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 2019)

전체 자살률은 감소 하는 반면, 10대 자살률은 증가

3.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최근의 이슈와 반성

청소년 위기 문제의 심각성

자해 경험

40천명



9.7%

중학생
(1학년)

30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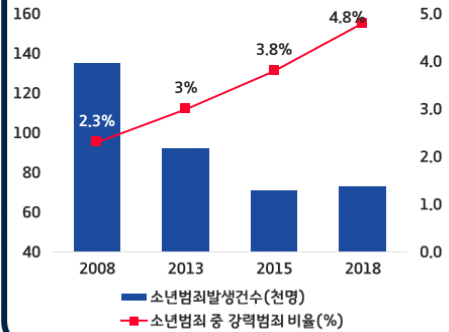


6.4%

고등학생
(1학년)

※ 출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교육부, 2018)

소년범죄발생 강력범죄비율추이



※ 출처 대검찰청

3.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최근의 이슈와 반성

청소년 위기 문제의 심각성

학교폭력

39천명



2016년

50천명



2018년

※ 출처 학교폭력실태조사(교육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

4,201명



2016년

3,942명



2017년

※ 출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여성가족부, 2018)

3.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최근의 이슈와 반성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공장 인근 폭행사건
(2017. 9. 1)

경찰 고소(이전 폭행)에
따른 가해자들의 보복폭행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중학생 6명 집단폭행
추락사
(2018. 11. 13)

다문화 청소년으로
학교에서 따돌림

- ➡ 지역사회내 CYS-Net 필수연계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 ➡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 미흡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CYS-Net 운영체계 개편 시작

3.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최근의 이슈와 반성

CYS-Net 무엇이 문제였나?!

CYS-Net이 무엇인가요?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

CYS-Net, 누가 하는 것인가요?

운영 주체의 혼동

필수연계기관, 꼭 연계해야되나요?

느슨한 필수연계체계

반성을 통한 CYS-Net의 구체적 변화

4.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왜 변화할 수밖에 없는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여성가족부)



“위키 징후가 있는 청소년이라면
자동적으로 관심 대상 청소년이 되고,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관계부처·민간까지 총괄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전략2.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교육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지원

① 과제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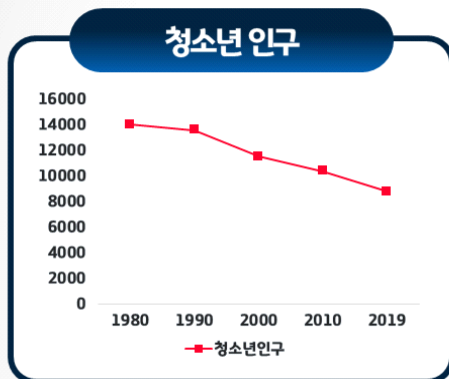
-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② 주요내용

-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생애주기별각종위기에서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종합적지원체계미련가족정책과아동·청소년
업무·연계통합추진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강화**

4.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왜 변화할 수밖에 없는가?



※출처: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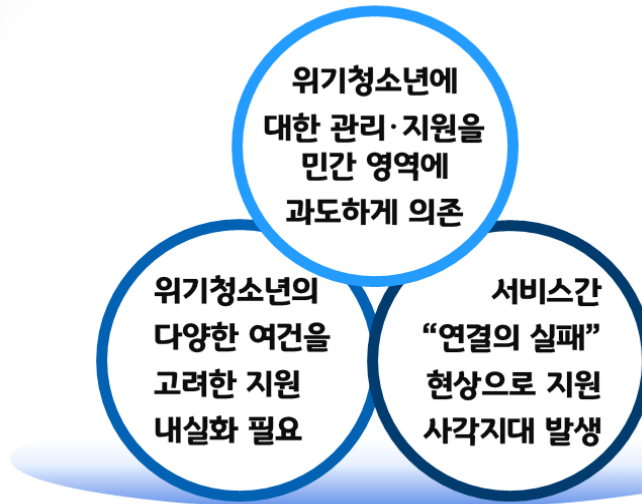
청소년인구 점점 감소

그러나

**청소년 고위기 문제와
사회적 비용 증가**

**한국사회는 단 한명도 놓치지 않고 위기청소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시켜야 함!!**

4.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왜 변화할 수밖에 없는가?



공공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필요!

5. 청소년안전망(구 CYS-Net), 변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



6.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변화

무엇이 변화했는가?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

CYS-Net 용어변경 → '청소년안전망' (2019. 7)

→ 대국민 정책사업 이해 제고

운영 주체의 혼동

청소년안전망의 지자체 운영 명확화

→ 2019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진행중 (지자체 내 안전망팀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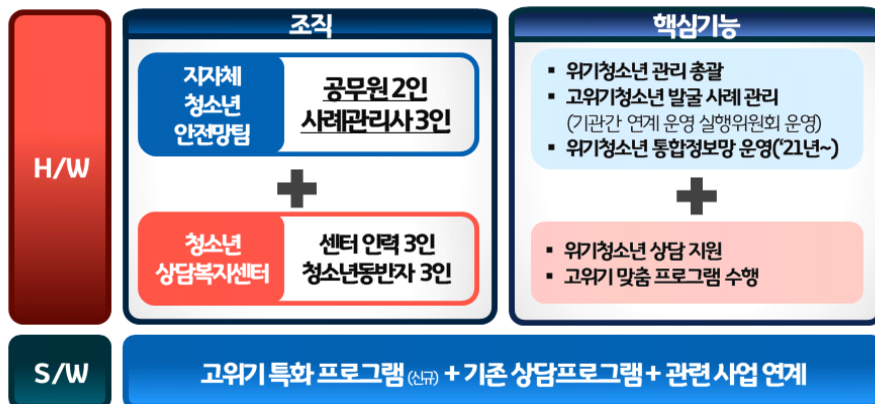
느슨한 필수연계체계

경찰, 드림스타트를 시작으로 연계체계 강화

→ 경찰청 (MOU),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협의중)

6.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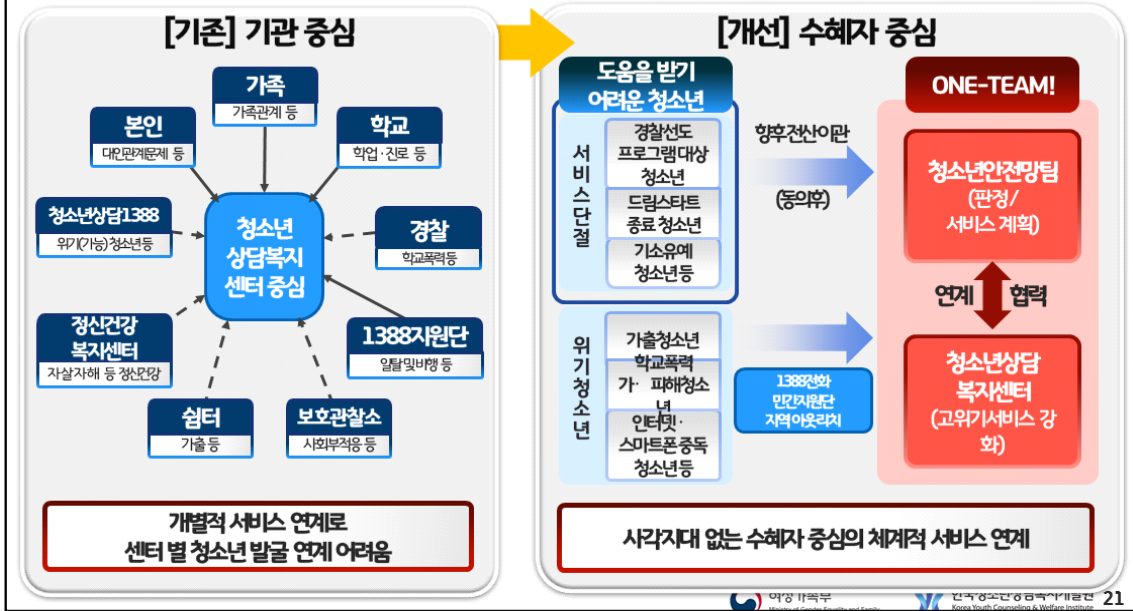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안)



청소년 전담공무원, 사례관리사로 '청소년안전망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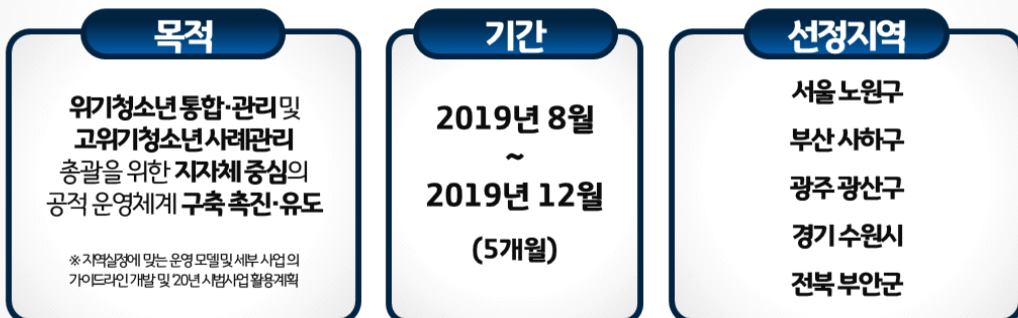
6.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변화

수혜자 중심의 위기청소년 발굴·연계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6.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변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6.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변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구분	청소년인구(명)	주요사업
서울 노원구	109,928	○ 경찰·법원 등과 정보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고위기청소년 발굴 ○ 아동복지서비스(드림스타트 등)와 서비스 연계 제도로 서비스 단절 방지
경기 수원시	225,889	○ 지자체가 직접 자살·비행 등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총괄 ○ 공공·민간자원 발굴·조직화로 활용 가능한 자원 확충
부산 사하구	51,689	○ 지역 특화사업 운영 - 경찰서와 협업한 OPEN HOUSE 운영 (노원구) - 우범송치청소년가족캠프 개최(사하구)
광주 광산구	92,007	- 위기청소년 부모 및 지도자 대상 교육(광산구) - 상담교사 미배치 학교 대상 이동상담실 운영(수원시)
전북 부안군	7,070	- 후기 위기청소년 특화 진로상담·교육(부안군)

6.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변화

위기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행정망 구축, '20년 이후)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정보망을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 고도화

6. 청소년안전망 사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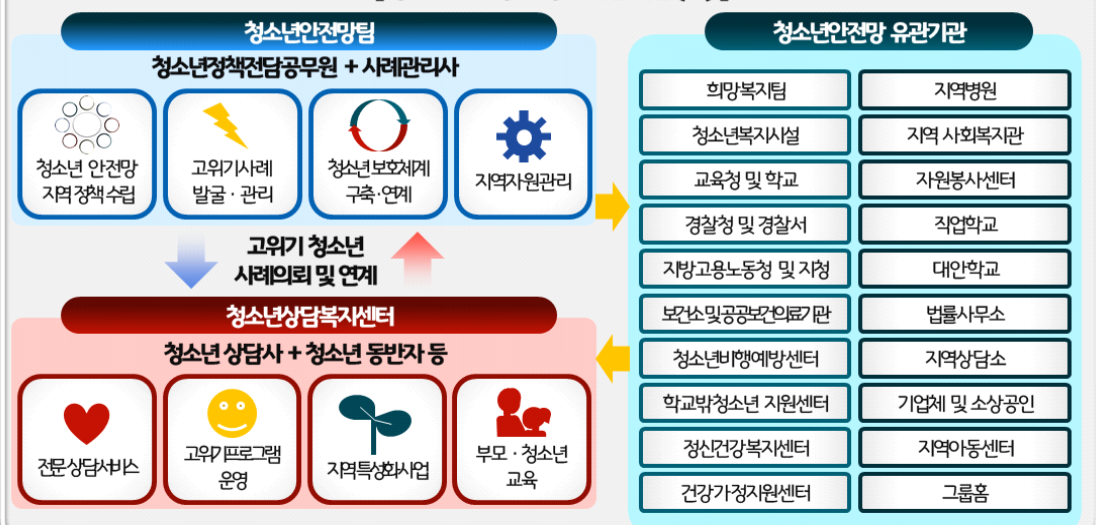
고위기 청소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7. 향후 논의해야 할 것들

① 청소년안전망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관계

[청소년안전망 운영조직별 역할(안)]



7. 향후 논의해야 할 것들

② 고위기 개입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개발]

청소년 자살·자해 상담개입 프로그램

청소년 성폭력 상담개입 프로그램

청소년 비행 상담개입 프로그램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급

논의사항

고위기청소년 개입에 대한 서비스개발과 특성화 사업 발굴을 통해
센터의 킬러 콘텐츠의 지속적인 고민 필요

2019년도 청소년정책포럼

감사합니다

[토 론]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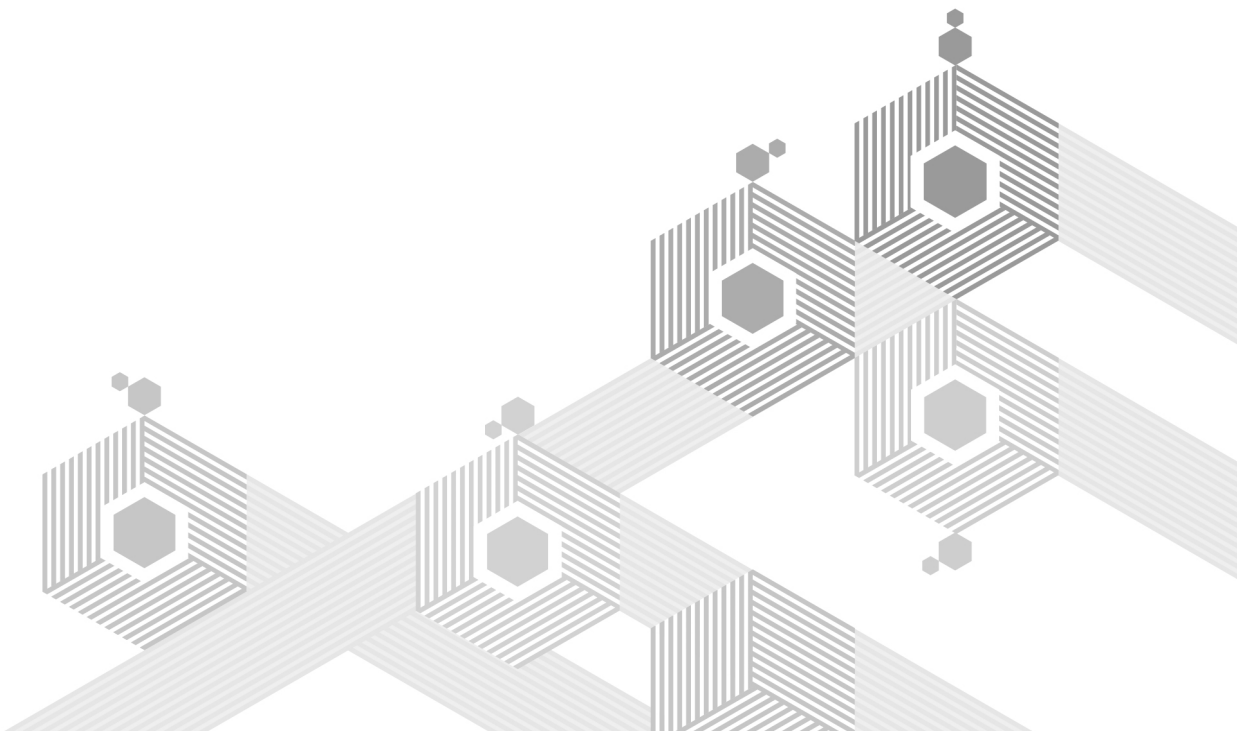
김지선 서울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황윤미 부산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장

안주란 교육부 사회전략기획팀장

황우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지역’을 위한 첫 걸음, 청소년안전망

서울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 위기청소년의 현재 상황과 위기청소년정책의 괴리

- 요즘 아이들의 새로운 비명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후천성(자연, 인간관계, 인내심, 자기사랑)결핍 및 상대적 박탈감 상태의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음(김현수, 2019)
- ‘수원초등생 집단폭행(2019.9)’, ‘인천중학생 추락사(2018.11)’, ‘부산중학생
폭행(2017.9)’등에서 보이는 위기청소년의 현재 상황의 심각성
- 급속한 사회, 문화적 변화로 청소년의 위기는 증가하였지만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
- 이전 CYS-Net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축하였지만 위기청소년의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체계가 되지 못하였으며 지역은 잘 모르는 회의체계
- 늘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과 대응보다 사건 발생 후 대안마련에 급급

□ 지자체의 책임 강화, 청소년 안전망 구축의 토대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고..
지역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는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별 사업의 중요도와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임
지자체 장의 마인드에 따라 예산과 인력구조가 자주 바뀌고 있음
- 위기청소년사업 담당 체계 구축과 청소년전담공무원 육성·배치가 급선무
지자체내 소통과 통합지원체계부터 마련하고 공공기관 네트워크 구축
- 각 지자체가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적극화할 수 있는 독려방안 필요
- 지역에서 생애주기별·단계별 위기개입 및 지속가능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청소년 안전망의 토대가 될 수 있음

□ 노원구의 사례

- 열악한 지역 환경과 자원, 많은 아동청소년에 근거하여 90년대부터 민간 및 민관네트워크가 활성화 (민관공동활동의 전통이 있음)
- 201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례제정, 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한 ‘노원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위기청소년사례관리, 위기에방사업 진행)
- 위탁형 대안학교 지원(현재 초·중·고 3개교, 6학급)
- 특별이수기관 사업 및 학교내 대안교실 지원
- CYS-Net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지원단 구성
- CYS-Net 운영 실제화를 위한 노력 (분과모임 활성화, 공동사업 진행)
- 2018년 지자체 중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영
- 2019년 ‘아동청소년과’ 신설 및 청소년전문가 ‘개방직 과장’ 채용
-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복지팀, 아동친화정책팀, 드림스타트팀, 아동보호팀, 청년 지원팀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 연계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 2019년 9월 교육청과 연계하여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전체학교로 확산하여 진행할 예정 (청년일자리로 사회봉사활동지도사 채용)

□ 청소년안전망 정착을 위한 제안

- 무엇보다 청소년안전망은 기관간의 연계가 중심이 아니라 위기청소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관과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러 기관이 연계되어 있어도 실제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 제대로 시행해보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선도사업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지원 등으로 낼 수 있는 효과는 적다. 보다 전문적이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지원으로 인큐베이팅하고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안전망팀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 민·관기관과 언제 어느 때라도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지자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의 연계 나아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민간기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체계라면 한발 더 위기청소년에게 다가설 수 있다. (노원의 청소년안전망 회의시 안전망팀이 경찰서, 교육청, 보호관찰소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위기 예방과 긴급대응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학업중단 및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중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긴급대응체계가 제대로 가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개선사업도 필요하다.
- 기존 역할을 하던 상담복지센터와 새로 구성되는 청소년안전망팀 간의 역할 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위기청소년에 대해 축적한 전문성을 잘 살리고 공적인 체계가 공고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삶에서 확인되고 실현되는 청소년 중심의 안전망

부산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황윤미**

1. 청소년안전망의 반성에 대한 반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청소년안전망의 중심에서 청소년지원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사업시행 초기, 센터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CYS-Net이라는 용어를 지역에 설명하고 안전망의 주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 중심에서 고군분투 해왔다. 센터는 지방상담사업 외에 1388청소년지원단과 필수연계기관 구축, 1388 청소년전화, 청소년안전망의 실행위원회 운영,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서 상담 및 지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기관과의 연계협력사업(경찰청 선도프로그램, 교육청 특별교육 및 정서행동케어시스템 운영, 법원 수감명령 집행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을 하고 있다. 청소년 안전망가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위기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 이유를 필수연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통합적 사례관리체계의 미흡에 두고 촛촛하지 못했던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 한다. 기관중심의 개별적 서비스 연계로 고위기청소년 발굴이 어려웠다고보다는 발견된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어려웠던 것은 아닌지, 선명해 보이는 CYS-Net의 서비스전달체계가 실제 가동되기에는 너무나 선언적인 것은 아닌지, 청소년안전망의 반성에 대해 다시 반성해 본다. 위기 청소년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다음의 한계들로 인해 통합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첫째, 민간기관으로서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보 접근의 한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위기청소년 발견에서부터 서비스개입 등 업무범위가 넓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사례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 청소년안전망은 본래 지자체가 운영의 주체이다. 위기청소년 사례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역할을 한다면 상기의 한계가 극복되리라 본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지자체, 지역사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역할과 기능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

① 2018년 3월 장기 결석하는 중3 남학생. 교사가 가정 방문 후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고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 행정복지센터는 청소년에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하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뢰. 청소년동반자 개입. 오토바이 절도 등의 비행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며, 가정의 돌봄부족, 가출, 장기결석, 흡연, 음주, 주거환경 열악 외 지적장애 누나 돌봄 부족 등 문제가 복합적임.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경찰서, 학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청소년지원을 논의. 교육청은 등교도우미 지원, 경찰서는 선도대상 청소년 집중사례관리, 지자체는 마을지기 집수리지원과 급식카드 발급.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석식 및 야간돌봄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지적장애 누나의 장애 등록과 사례관리 진행. 청소년동반자는 심리상담 및 부 상담, 재비행하지 않고 학교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 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사례 관리. 청소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함. 누나는 장애인 등록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대상이 됨. 이전 비행으로 소년원 송치 후 최근 퇴소하였으며, 우울 및 불안 등을 호소하며 최근 센터에 직접 내방함. 현재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행청소년 집중사례관리 사업인 드림캐처 대상으로 사례관리 함(사하구청-사하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하경찰서-보호관찰소의 협력사업). 부와 함께 드림캐처 가족캠프에 참여. 경찰서와 보호관찰소에서는 재비행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상담(우울 및 불안 등 호소),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생활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음.

② 2019년 8월 사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의뢰 된 18세 남자청소년. 부의 방화사건 조사 중 출생신고 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 존재를 알게 됨. 센터 자체 사례회의 후 대학생 학습 멘토지원, 꿈드림 센터의 클라이밍 동아리, 창업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울과 자해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례 연계하여 청소년동반자 상담진행. 지자체에서 최근 출생신고 된 것을 확인함. 청소년증 발급과 건강검진, 치과진료 지원 예정임. 이 사례 청소년 안전망팀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례개입 할 예정임.

첫 번째 사례는 청소년안전망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던 공무원이 청소년을 발견하고 연계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례이다.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두 번째 사례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장기적 관점에서 사례관리 한다면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 정책초점 집단이 국가시스템 상 보호되는 고위기 청소년에만 집중된다면, 또 다른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2.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을 위한 제언

청소년안전망이 지역사회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청소년지원의 최접점에 있는 종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센터와 지자체 안전망팀의 역할이 구분되고 발굴·연계 체계가 명확하기를 바란다. 지자체 안전망팀과 센터, 지역사회가 '연계·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둘째, 민·관 청소년지원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소년안전망팀과 센터가 정기적 사례관리 시스템을 갖추 것을 제안한다. 거버넌스 구축은 청소년안전망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며, 정기 사례관리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전문적, 장기적 관점에서 하기 위한 필수 장치가 될 것이다. 셋째,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센터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하기 바란다. 센터는 청소년자해 및 자살 프로그램 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고위기 개입 프로그램을 전문 상담원이 교육받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부산지역 구·군 센터는 긴급 위기상황 발생 시 지역 센터의 대응력을 높이고 접근성 높은 센터들 간의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축·가동하기 위한 안전망 권역화를 위해 권역별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동부산권 센터 : 자해자살, 중부산권 센터 : 성, 서부산권센터:바행폭력).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외상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인력풀을 구축하였다. 부산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는 긴급대응과 관련하여 사례공유하고 논의할 뿐 아니라, 센터별 긴급대응 조직을 구성하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에서 센터의 전문성이 충분히 이용되어졌으면 한다.

청소년안전망이 선언적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실제적이고 유연하며, 즉시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설명하고 규정해야 하는 안전망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에서 확인되고 실천되어지는 청소년 중심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안전망에 대한 명확한 개념설정과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 정보연구센터장 오미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빅데이터 전문센터 선정(2018.05.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정보연구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의 생산·구축과 분석·활용을 선도하는 전문센터로 선정되었음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48.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의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구축 지원 - 위기아동시스템은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 실시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대 등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며, 빅데이터 연구센터의 기계학습에 기반을 둔 예측모형을 적용 하여 2017년 시범적용 하고 있음
 -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모형 개발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연계·지원
 - 통계 측면에서의 아동통계 행정패널 구축 방안 논의
 - 복지, 교육, 문화 등 아동의 기본욕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탈빈곤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의 목적 중심으로 축적된 행정데이터 및 가구 중심의 통계 생산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동 개인 중심의 행정패널을 구상하여 아동의 성장 변화 파악 및 국가재원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의 기초자료 제공
 - 저소득가구 아동의 성장 및 발달을 파악하고 탈빈곤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아동 중심의 통계 생산을 위한 통합된 행정데이터 프레임 구상
- * 복지부 수탁사업으로「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아동통계 행정패널」연구 중 (2019.3.28.~11.30.)

□ 작성대상

○ 저소득가구 아동

-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의된 저소득 가구에 속한 아동

○ 정책대상 아동: 장애 가구 + 한부모 가구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 + 다문화 가구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아동 발생 이후, 일련의 보호조치를 거쳐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의미하지만, 본 자료에서 편의상,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된 학대피해아동 까지 포함

□ 통계 분류

○ 영역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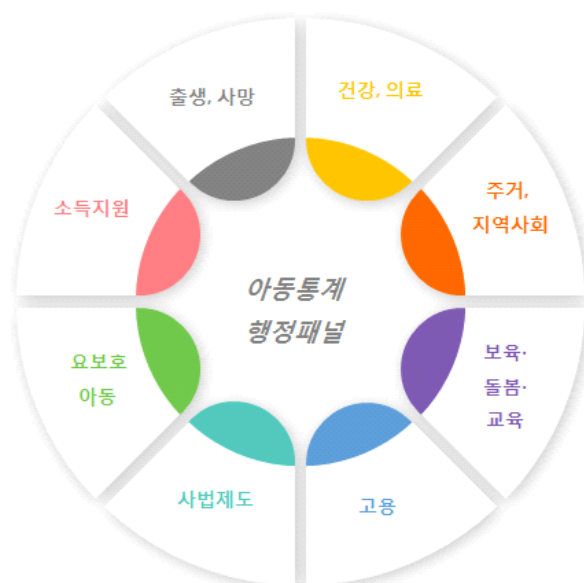
- 소득지원, 보육·돌봄·교육, 출생·사망, 요보호아동, 의료·건강, 주거·지역 사회, 고용, 사법제도

○ 연령대별 분류

- 아동 전기, 아동 후기, 청소년, 청년,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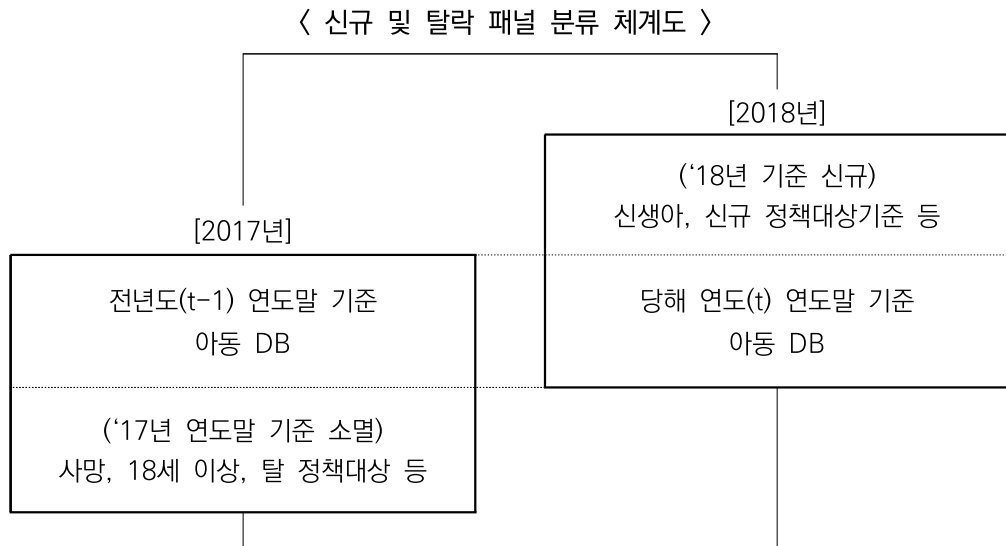
* 청소년 관련 정책은 9세 이상 24세 이하

* 고용,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실태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연령(18세)보다는 상향하여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신규 및 탈락 표본 분류 방법

- 2018 12월 31일 기준 아동(만0세~만18세)에 대한 DB 구축 후 신규 및 소멸 패널은 전년도(t-1) 자료와 당해 연도(t) 자료와 비교하여 분류



□ 활용 방안 해외사례

- 위탁가정에 배치된 아동의 청소년 범죄 참여율 (cross-over youth)을 통합 행정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파악하는 연구들을 통해 정책 표적집단 파악 및 맞춤형 서비스 도출 (시카고, 뉴욕, 클리블랜드)
 - 학대·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향후 청소년 사법서비스 연계 비율, 복지 급여 수혜율, 낮은 교육성취 등 부정적 결과 파악 (뉴질랜드)
- 아동기 공공부조 수혜이력과 성인기 수혜 이력을 종단적으로 연계하여, 세대간 빈곤 이전 파악 (유타)
- 노숙을 경험한 영유아의 저체중, 호흡기질환 등 건강 문제 또는 향후 의료 비용 파악 (메사추세츠)
- 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자의 9년 뒤 세금 및 급여 이력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샌안토니오)
- 공공부조 수혜한 가구 아동의 청소년기 교육성취(학업성취, 출석률 등) 분석하여, 청소년 성공 결정요인 분석 (위스콘신)

포용국가 실현의 첫걸음, 청소년정책 분절성 극복을 위한 과제

교육부 사회전략기획팀장 **안주란**

- 포용국가 사회정책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의 중요성
 - 아동·청소년 정책은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핵심이자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첫걸음
 - 생애 주기에서 아동 발달단계 초기의 격차는 아동이 성장해 갈수록 더욱 크게 벌어짐
 - ※ 아동1인당 1파운드 투입시 12.5파운드의 사회적 환원 비용 효과('12. Barnardo)
 - 최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안)」은 부처별 취약위기청소년 지원 정책간 연계·협업강화로 보호·지원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 (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아동에 대한 4대 전략, 10대 과제 제시('19. 5)
 - (교육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및 보완대책 발표('17.12, '18.8)
-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 현재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는 학대 아동과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복지부), 가출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YS-Net(여가부), 학교 중심의 Wee 클래스(교육부), 비행청소년 선도·교정의 소년사법체계(법무부)로 각각 운영
 - 서비스 전달체계도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 하고, 개별 법률에서도 정책 대상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서비스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

⇒ 청소년 정책이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분절성 극복과 실제 수혜 대상자와 사회서비스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 강화 필요

⇒ (사례) 최근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 추진 중인 지역통합돌봄 선도지역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

○ 과제

- 모든 관련 부처가 위기 아동·청소년 관리를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 (여가부는 시군구 내 청소년안전망팀을, 복지부는 드림스타트팀, (가칭) 아동보호팀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된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관련 중앙부처(복지부·여가부·교육부·법무부)와 지자체가 한자리 모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안전에 따라 참석대상에 기초지자체 장을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임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간 정보 연계 범위 확대, 법령 정비 등도 필요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황우정

- 현 정부는 “위기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고,
 -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19.5.17.)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음
- 그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청소년안전망’을 지자체 중심의 공적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과제임
 - 이를 위해 ‘20년 지자체 기준인건비에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전담인력이 반영(청소년인구수 등 고려하여 90여개 지자체 반영)되었고, '21년~22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지자체(시·군·구) 청소년안전망팀 설치·운영을 위한 운영모형 및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20년 9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임
- 위기청소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도 구축 예정임
 - 복지부 아동복지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드림스타트 등), 교육부, 경찰청 등 위기청소년을 보호·지원하고 있는 각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사업간 연계를 제도화하고,
 - 청소년쉼터, 학교밖센터 등 여가부 지원기관별 정보망을 통합하고, 학교·경찰 등 타기관 정보망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이력을 관리하는 통합정보망 구축을 추진 중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정보 연계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예정

- 또한, 범죄·비행청소년, 자살·자해 등 고위험군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에서 직접 사례관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보다 전문화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공모를 통해 '20년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예정

- 앞으로 여가부의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위기청소년 관리의 중심기관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필수연계기관과의 협력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청소년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세미나자료집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안전망의 새로운 변화 모색

인쇄일 2019년 9월 26일

발행일 2019년 9월 27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 415-2114

발행인 송병국

인쇄처 가꿈복지직업재활시설 (051) 862-8090
